유다윤 (Dayoon You)

"젊은 에너지와 예술적 권위를 겸비한 표현력, 그 안에서 발현되는 깊은 자유로움"
- La libre Belgique

2027년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선정된 바이올리니스트 유다윤은 2024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입상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차세대 연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앞서 2023년 롱-티보 국제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준우승, 2022년 헨리크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입상, 2021년 ARD 국제 음악 콩쿠르 크론베르크 아카데미 특별상 수상 등 세계 주요 콩쿠르에서 꾸준한 성과를 거두며 탄탄한 음악적 기반을 쌓았다. 또한, 2023년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 현악사중주 부문 1위(아레테 콰르텟)를 비롯해 바덴-바덴 칼 플레시 아카데미 슈테느브뤼겐 상, 신한음악상 등을 수상하며 솔리스트와 실내악을 아우르는 폭넓은 음악성을 보여주고 있다.

솔리스트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유다윤은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베르사유 궁전 왕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포즈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크라쿠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수원시립교향악단, 성남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과천시립교향악단,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였으며, 안토니 헤르무스, 우카시 보로비츠, 빅터 제이콥, 홍석원, 최수열, 지중배, 서진, 안두현 등 국내외 저명한 지휘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협연 활동과 더불어 콘세르트헤바우 암스테르담, 베를린 필하모니, 콘체르트하우스 베를린, 필하모니 룩셈부르크, 앤트워프 AMUZ, 브뤼셀 보자르, 프라하 스메타나 홀,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세계 주요 공연장에서도 연주해 왔다. 최근에는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투어와 폴란드 크라쿠프 축제 등 국제 무대에 참여하였으며, 국내에서도 금호악기시리즈,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 더하우스콘서트 등 주요 시리즈 공연에 꾸준히 초청받고 있다.

또한, 2026년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희망 Dream NEXT : Stage' 연주자로 선정되어 지휘자 정치용, 소프라노 황수미와 함께 무대에 올랐으며, 2023년 금호문화재단 금호악기은행 수혜자로 선정되어 1774년산 과다니니 '투린'을 사용 중이다.

유다윤은 현재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 음악대학에서 콜야 블라허를 사사하고 있다.